

미치광이 윤석열을 탄핵하라

의정단상

채은지
광주시의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전두환의 12·12사태에 더해 윤석열의 12·12담화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 국민의힘의 썩어빠진 당론 덕에, 국민들은 이 정신나간 내란수괴의 담화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신헌법과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유신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인데, 당시 정부는 이 조항을 국민은 ‘명목상’의 주권자일뿐, 실질적인 주권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현행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에서만 나와야 하며, 그 외 어떠한 세

력도 권력을 좌우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즉, 선출직 대표자는 ‘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 ‘권력’은 갖지 않는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국민의힘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폭거이다.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윤 대통령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만 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이를 무기 삼아 국민을 위협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헌법적 쿠데타나 다름없다. 한밤중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국회의 신속한 무효화 결의덕에 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모든 경제지표는 급락했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국민의힘의 행보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고, 계엄령 사태를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투표에조차 참여하지 않은채 도망쳤다. 나아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생경한 주장을 펼치며 헌법적 질서를 왜곡하는 구차한 모습으로 비웃음만 사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을 위반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권력 논리에 따라 국가 체제를 재구성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민주적 의지를 조롱하는 행위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1장의 목적은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로 시작한다. 당헌을 무시하는 당론은 명분을 잃었다. 국민의힘은 자기부정을 중단하고 반헌법적 결정을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또 한 번 잃는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질서 있는 해체’ 뿐인 것이다.

당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비겁하고 알팍한 자들에게 고한다.

국민은 이미 탄핵을 결정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뜻을 따라라.

社說

탄핵으로 후안무치한 궤변 책임 물어야

변명 담화, 국민 공분만 불러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내놓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대국민 담화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광주지역 5개 자치단체 구청장들은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반성하고 자중해도 용서받지 못할 상황에서 자기변명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 인식이 한심하고 참담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30여 분에 걸친 담화에서 시종일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변명에 급급했다. 특히 그는 계엄이 헌정질서와 국헌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로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했다.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거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도록 경고한 것이라는 등 자극적인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

고,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고 지시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장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을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내란죄로 구속됐고, 대통령은 주도적 공범으로 적시됐다. 국회에 출석한 군 관계자들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라는 윤 대통령의 불법 지시를 증언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막기 위해 군 병력이 동원됐고 다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윤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국회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입법부를 공격한 전대미문의 내란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소모적 논쟁과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선택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대한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세계인 입맛 사로잡는 전남산 장류 되길

장류 수출액 10년 간 5배 증가

전남산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 장류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전남산 장류 수출량은 최근 5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K-푸드 열풍이 전통 장류 수요 확대를 이끌며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전남산 장류 수출량은 3195톤으로 734만2000달러에 달했다. 2014년 670톤(160만8000달러)보다 4.7배 증가한 규모다.

품목별로는 간장이 1330톤으로 3.9배, 된장이 138톤으로 1.6배, 고추장이 1490톤으로 8.5배, 기타 장류가 236톤으로 3.4배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도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36개국으로 확대됐다. 전남도는 전통 장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농수산식품 세계 일류 상품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담양의 농업회사법인 ㈜고려전통식품에는 된장과 딸기 고추장 소스의 미국 진출을 도왔으며, 순천 ㈜매일식품에는 필리핀 수출용 불고기 소스와 고추장 소스 개발에 업체당 6800만원을 지원했다. 중국 해외박람회

참가, 상하이·베이징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등도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통 장류는 한국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밑바탕이다. 전남산 장류는 전남을 ‘맛의 본고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한 일등 공신이다. 그만큼 전남산 장류의 우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등장하는 피말리는 요리 경연에서도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이 주요 소재로 다뤄져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최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성과도 거뒀다. 김장 문화 이후 먹거리로는 두 번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전통 장류의 냄새조차 맡지도 못했을 만큼, 거부감이 컸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를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남 전통장류 육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소스 개발 등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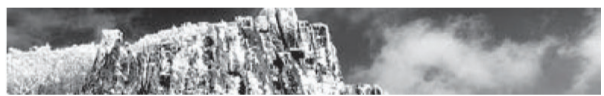
11일(현지시각)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모자이스키에서 데드 모로즈(러시아 전통 산타클로스) 복장의 운전자가 모스크바 붉은광장에 설치될 크리스마스트리를 실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인사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한동훈이 국가적 리더로 부상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다시 대통령을 꿈꾸는 사회가 될 것이다.” 지난 2023년 12월, 스페인 IE 대학 심규진 교수가 정치인 한동훈의 가치를 분석한 책 ‘73년생 한동훈’을 펴냈다. 어느 순간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른 한동훈. 저자가 한동훈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가 ‘정치에 대한 혐오와 이념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화려하면서 안정감 있는 언변, 반듯한 매너, 논리적인 말습씨, 단정한 자기 관리, 세련된 스타일 등이 당당한 보수의 이미지를 부활시키는 한동훈만의 장점’이라는 게 심규진의 평가였다.

기존 정치 세력과 무관하고, 환경적 결핍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란 ‘최고의 인재’라는 것도 저자의 주장이었다. 개인의 매력만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는 한동훈은 적어도 저자에게 기존 정치인의 능력주의가 갖고 있던 촌스러운 ‘짠내’는 물론이고 동정이나 눈물을 요구하는 신파가 없고, 정적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나서 위업을 지켜내는 능력자였다. ‘새로운 한동훈의 시대가 오면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합의하고 설득되는 생산적인 정치가 열릴 것’이라는 것도 저자의 희망이었다.

실제 한동훈은 정치에 뛰어 든 이후 파격적인 행보로 대



중의 눈길을 끌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하면 길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된 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기다렸다는 듯 루쉰(魯迅)의 말로 자신의 생각을 보여줬다. 현장 장관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단 한차례 만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것도 요즘말로 ‘쿨’한 결정이었다.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려 한다.”는 메시지는 저자의 표현처럼 신개념·신세대 정치인의 탄생을 예고하는 서사가 담겨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정치인 한동훈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수습책으로 내놔던 ‘질서 있는 퇴진’은 12일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사실상 거부하면서 한동훈의 입지를 뒤흔들고, 당 안팎에서 사퇴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 계엄선포 이후 계속됐던 잦은 말 바꾸기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다. ‘73년생 한동훈’의 저자인 심규진 교수마저 ‘굴종하는 보수 정치인’을 우려하며 한동훈을 압박하고 있다. 이념에 갇히지 않고, 세련된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던 한동훈. 잠시나마 ‘한동훈의 시대’를 꿈꿨던 ‘73년생 한동훈’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의 흔들리는 리더십으로 과연 정치권에 버틸 수 있는 것일까.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